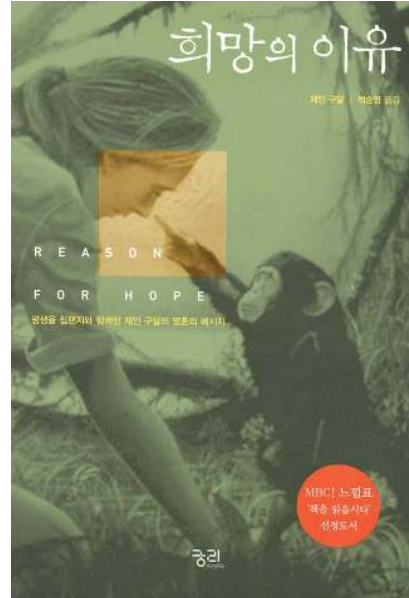


희망의 이유

MBC 느낌표 '책을 읽읍시다' 선정도서

제인 구달 지음 | 박순영 옮김

자연과학|352쪽|사진65컷|신국판|9,000원|
ISBN 89-88804-49-X(03840)
2000년 11월 11일 출간



● 평생을 침팬지와 함께한 고귀한 영혼의 제인 구달

“행동과학의 아인슈타인”, “영웅 없는 시대의 진정한 영웅”,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열 명의 여성 중 한 명”,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지식을 넓혀준 가장 위대한 공헌자” 라는 평이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 우리에게야 야생 침팬지 연구의 선구자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 제인 구달.

이 책은 바로 제인 구달의 65년 동안의 긴 인생 여정을 담고 있다. 이 책에는 40년 전 자신이 세상에 소개한 고편의 야생 침팬지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녀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게 힘을 준 소중한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고인이 된 남편의 사랑과 도움, 친구들, 동물보호와 환경보호에 선구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한 편의 감동적인 영화처럼 펼쳐진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환경과 파괴 불평등, 물질주의, 대량학살, 전쟁 등과 같은 인간이 자행하는 온갖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미래에 대해 낙관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 내일의 세계를 구하는 것은 바로 ‘당신’ 과 ‘나’

우리는 우리의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 과연 침팬지들이 아프리카 열대 우림에서 살아 남을 희

망이 있을까?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을까? 이러한 모든 것들로 인해 새 천년은 절망적으로 보인다. 실제로 환경보호론자들은 열대우림이 파괴되는 속도, 온실 효과를 가져오는 가스의 증가, 인구 증가 속도 등의 통계를 근거로 지구상에서 생명이 끝나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통계치들을 제시하기도 한다. 세계는 ‘일순간의 폭발이 아니라 한동안 흐느끼는 사이에’ 종말을 맞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인 구달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꿀 때에만, 그것도 하루 빨리 바꿀 때에만 희망은 존재할 것이다. 그러한 변화는 바로 나와 당신이 가져오는 것이다. 우리는 변화를 일으킬 책임을 이제 더 이상 남에게만 미룰 수는 없는 시점에 와 있다. 이제는 우리가 힘을 합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계의 손과 두뇌와 마음을 모은다면, 틀림없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생활방식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입힌 지구의 상처들을 치유함으로써 지구의 완전한 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구 환경의 여러 가지 요소들에는, 제인 구달 같은 고귀한 영혼을 가진, 좀더 많은 사람들의 철저한 연구로 인한 깨우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우리가 지구 환경에 대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지구 환경을 보존시키는 적절한 행동의 규칙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제인 구달은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기도만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전투에 자신을 투신할 것이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도 생명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똑같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전투” 라고 표현할 만큼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지만, 그녀는 이러한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두뇌’, ‘자연의 회복력’, ‘전세계 젊은이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에너지와 열정’, ‘불굴의 인간 정신’ 에서 미래에 대해 희망을 읽는다.

● 제인 구달이 인류에게 전하는 네 가지 ‘희망’ 의 메시지

첫째, ‘인간의 명석한 두뇌’ 가 있는 한 우리는 ‘희망’ 을 가질 수 있다.

초기 우리의 조상들은 ‘두뇌’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고, 지금의 침팬지들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원시적인 도구들이 정교화되어 현대적인 기술로 발전되어왔다. 나아가 현대 의학의 발전 덕분에 모든 인간들이 살아 있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술들이 악용되어 자연 세계를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기계들을 만들어냄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가져오기도 했다. 이에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이 위협받고 있음을 절감하

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희망’ 은 이러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 있다.

오래 전부터 이러한 부분에 있어 많은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이 있어 왔고, 환경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는 환경보호운동의 선구자들과 기업들의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필요한 경우 ‘기회와 도움을 준다면 충분히 회복되는 자연의 놀라운 회복력’ 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인간은 때로는 자연이 주는 혜택을 십분 활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곤 한다. 한때 템즈강은 인간의 무관심으로 인해 오염에 찌들어 있었지만, 지금은 대대적인 정화작업을 함으로써 물

고기와 새들이 돌아오고 있고,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두 번째 핵폭탄이 투하된 나가사키도 오염으로 인해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지금은 녹색 나뭇잎들이 빠르게 자라나고 있다. 또한 콰베도 1960년대보다 놀랍도록 나아진 환경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몇 군데만을 보더라도 인간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준다면 자연은 놀라운 자생력을 가지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전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열정,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인식과 힘을 실어준다면 그들은 세계를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젊은이들을 위한 ‘뿌리와 새싹’의 모임은, 인구 과잉, 무분별한 벌목, 토지 침식, 사막화, 가난, 굶주림, 오염, 인간의 탐욕, 물질 중심주의, 잔인함, 범죄, 전쟁 등 인간이 지구상에 가져온 모든 나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또한 이들은 환경, 동물,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보호 실천 운동을 추진하고, 이를 끊임없는 지식과 이해, 끈기와 노력, 사랑과 연민으로서 극복해 나간다.

넷째, ‘절망적인 어려움을 딛고 결국 성공한 훌륭한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 지구에 자신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 다른 사람들이 따를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개척한 사람들, 위험한 상황에서도 숨은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 심각한 육체적 장애를 딛고 감동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모두에게 교훈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계속해서 탄생하는 한 이 세상은 좀더 따뜻해질 것이다. 그녀는 말한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그러한 훌륭한 눈들을 보게 되고, 그것을 마음으로 느끼게 되어 동조하고 있다. 여기에 미래를 위한 진정한 ‘희망’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인류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운명, 연민과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인 구달에 대하여

제인 구달은 1934년 런던에서 태어나 영국 남부의 해안에 있는 빈머스에서 자랐다. 어린 소녀였을 적 “타잔”이나 “정글북”을 읽으면서 밀림의 동물들과 함께 하기를 꿈꿔온 제인 구달은 동물과 함께 일생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나이 26세 때 아프리카 콰베로의 침팬지 연구 작업에 돌입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에 이른다. 그녀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동물행동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침팬지와 비비를 연구하는 Gombe Stream Research Center를 설립했고, 1975년 전세계에 걸쳐 동물 연구를 후원하는 『야생동물의 연구, 교육, 보호를 위한 제인 구달 연구소』를 설립했다. 또한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대영 제국의 작위를 수여받았으며, 권위 있는 기초 과학자인 교토 상과 뛰어난 연구, 탐험, 발견을 한 사람에게 주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사이어티의 허버드 상을 받았다.

“제인 구달과 산책하는 것은 간디와 산책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녀는 세계 각지를 순회하면서 전쟁, 환경파괴, 불평등 등으로 거칠어진 인심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는 활동을 하고 있다.

역자 소개 : 박순영

서울대학교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학교에서 인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옮긴 책으로

제인 구달의 『제인 구달-침팬지와 함께한 나의 인생』이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